

| 발 행 일 자 | 2017년 9월 28일

| 발 행 인 | 별별신문_ 용, 유나, 별, 달래, 차차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 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별별신문

33호 이태원

+ 지난 8월, 이룸에서 만나고 있는 청량리의 50-60대 여성들과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언니들의 소감을 공유합니다.

***꽃을 좋아하는 언니:** 여행을 해보니 경치도 좋고 인간관계 대화를 나눠보니까 좋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그걸 느꼈어. 새로 태어난 기분 같았어. 여행을 통해서 여기 언니, 친구들, 선생님들이 있구나. 여행을 통해서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고 즐거웠고 행복했어.

***소녀 춤을 추는 언니:** 여행을 가도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해서 기다려준 데는 없었어. 상대방이 나를 기다려주는 거. 내가 못 났어도 기다려주고 내 약점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 나 이거뿐이요 해도 받아주고. 그래서 좋아. 우리가 직업이 이렇잖아. 그러다보니까 부모 형제 자식 가까운 사람을 멀리하게 하고 옆에 있어도 거짓말 하고 이중생활을 하게 돼. 친구들도 동창들도 한번 씩 만나도 '뭐하냐?' 그러면 '나 간간히 식당일 해.' 라고 해. 가정에는 '간병인 한다'라고 말하고. 여기 다니면 여기 거짓말, 저기 다니면 저 거짓말.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지. 그런데 여기서는 터놓고 전화가 와도 편하고 잘못을 해도 편해.



작년부터 내가 '야 너랑 나랑 비슷하니까 친구하면 어떻겠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가 된거야. '야 한번 땀어지면 끝까지 가야지' 그러더라고.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평생 몸만 건강해라. 몸 좀 생각해라'고. 막상 다가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편하고. 성격도 맞고. (뒷면에 계속)

***꽃을 좋아하는 언니:** (의리가 넘치는) 언니랑 오래 됐어도 친해지지 않았어요. 쌀쌀맞고 그래서. 막상 다가가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작년부터 내가 '야 너랑 나랑 비슷하니까 친구하면 어떻겠냐'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가 된거야. '야 한번 땀어지면 끝까지 가야지' 그러더라고. '돈이 있고 없고 떠나서 평생 몸만 건강해라. 몸 좀 생각해라'고. 막상 다가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편하고. 성격도 맞고. (뒷면에 계속)

재한테 내가 고민도 얘기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남은건 병밖에 없고.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진짜 악바리로. 내가 생활력이 강해요. 한 저기로 취직을 하면 거기밖에 몰라. 청량리 밖에 몰라. 외곬수라. 가게에서 쓰러질 만정 근무시간만큼은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야. 죽어도 저기서 죽자하고 남한테 아효. 피해주지 말자고.

***우리를 웃게하는 언니:** 나도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는데 서울에 살았어도 생전 놀러도 안 다니고 그런 거야. 내가 가는 길만 가고 집에만 가고. 여기도 생전 처음 온 거라니까. 기분이 좋죠. 누가 나를 강원도로 데려오게 생겼냐고. 제주도도 죽었다해도 못 오고. 내가 63세 동안 처음이고. 진짜요. 내 평생 못한다니까. 속으로 항상 울고 다녀. 서로가 옛날에 청량리 있던 사람들이 못 볼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나고.



***의리가 넘치는 언니:**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으면 좋겠고 그 날만 손꼽아. 우리 다섯 명은. 그 날만 손 꼽고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우리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하루에 한번씩 얘기한다고 보면 돼. 전화 하면 ‘우리 언제지 어디서 보지?’ 이번 왔다 가면은 ‘우릴 또 데리고 갈건가 안 데리고 갈건가.’ 우리끼리 얘기해. 하는 말이 가을에 단풍 구경 한번 가고 싶은데 나보고 얘기하라해. (웃음)

그것만 기다린다니까 진짜로. 한 달에 한번 잡히면 그 날짜만 기다리는 게 낙이 되어버린 거야. 한 두시간 같이 앉아서 얘기한다 하면 그것만 머릿 속으로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이름에서는 언니들과의 가을 여행도 계획 중입니다. 언젠가 이태원의 언니들과도 여행 가는 날이 있겠지요?

무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 일수, 사채 빚 등으로 힘들어 파산을 고민 중일 때, 병원을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담일 때, 빚쟁이들의 독촉 때문에 힘들 때, 전화주세요. **경찰조사 동행,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해 드립니다.

철저한 비밀보장

이름상담소 02-953-6279